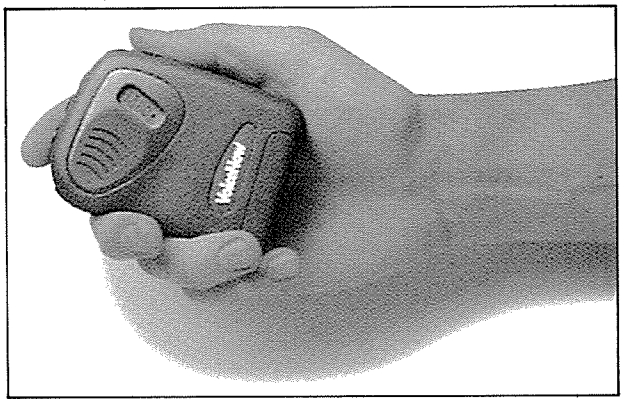
■ 세계 최소 호출자동응답기 '테너' 개발



손바닥만한 크기로 디자인이 독특한 '테너(Tenor)'는 그만의 아름다운 멜로디로 메시지 수신을 알리는 개인 음성 응답기이다.

모토로라사의 페이저제작본부(Paging Product Group)에서 개발한 세계 최소형 호출 자동응답기는 기존의 벨트클립형 호출기만한 사이즈로서 기존의 호출기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기존의 숫자, 문자로써 호출을 알리던 방식이 아닌 음성으로 모든 메시지를 전달한다.

최대 4분 가량의 메시지를 저장할 수 있으며 메모리용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LCD상에 '메모리가 불충분함, 미수신 메시지 남아있음'이란 경고 메시지가 표시된다. 불충분한 메모리 상태에서 새로 온 메시지는 네트워크상의 가상기억장치(virtual memory)에 저장되었다가 사용자가 테너 메모리내의 메시지를 읽거나 삭제하고 나면 테너가 알아서 자동으로 네트워크에 '메모리 가능'(available memory)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다음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메시지를 재생하게 된다.

테너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재생(play), 되감기(rewind), 중지(pause), 빨리감기(fast forward), 검색(scan forward), 리버스(reverse) 등이 가능하며 주요 메모리는 잠금장치를(lock) 사용할 수도 있다.

청취시 음성의 크기는 3가지 타입으로서, 혼자만 들을 수 있는 비밀모드, 조용히 정취할 수 있는 개인모드,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 들을 수 있는 공개모드가 있으며 음성크기도 10가지 종류로 조정이 가능하다.

이 제품은 오른손 및 왼손잡이 사용자 모두에게 조작이 편리하고 거리에서도 사용이 간편하여 많은 사람의 기대를 받고 있으며 『인플렉션(inflexion)』이라는 고속 전송프로토콜을 이용한다. 아직까지 본격적인 서비스가 시작되지는 않고 있으나 96년 하반기에 본격적인 서비스가 시행될 예정이다.

■ 'ExpressFax +3.0' 팩스 패키지

워드퍼펙트사가 개발한 'ExpressFax + 3.0'은 여타의 팩스패키지보다 훨씬 많은 양을 전송할 수 있다. 단문은 물론 윈도내에서의 파일전송뿐만 아니라 윈도용 응용프로그램간의 파일전송도 가능하며 데스크탑 커뮤니케이션 센터로서도 응용된다.

음성모뎀을 지원하고 메일박스, 팩스로그, 전화기능을 갖추고 있는 'ExpressFax + 3.0'은 설치도 쉽고 가격이 비싸지 않아 가정에서 쓰기에도 적합하다. 로크웰 프로토콜 인터페이스(Rockwell Protocol Interface)를 지원하고 있는 이 제품은 '보통(regular)타입' '우수(fine)타입'의 해상도를 임의에 따라 설정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이미지 축소, 확대, 역상도 가능하다.

개인 또는 그룹을 상대로 보낼 수 있으며 전송예약 및 전화번호부에 근거한 필터링(filtering)도 가능하다. 전화번호부는 최대 99개까지 만들 수 있으며 각각 6만5천개의 전화번호를 입력할 수 있다.

각 레코드에는 다양한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충분한 항목(field)을 구비해두고 있다. 평균 전송속도는 페이지당 85초이고 인박스(inbox)로부터 얻은 새로운 팩스메시지를 제록스 이미지 시스템(Xerox image system)의 텍스트브리지 OCR엔진(Textbridge OCR engine)을 통해서 텍스트 모드로 전환, 편집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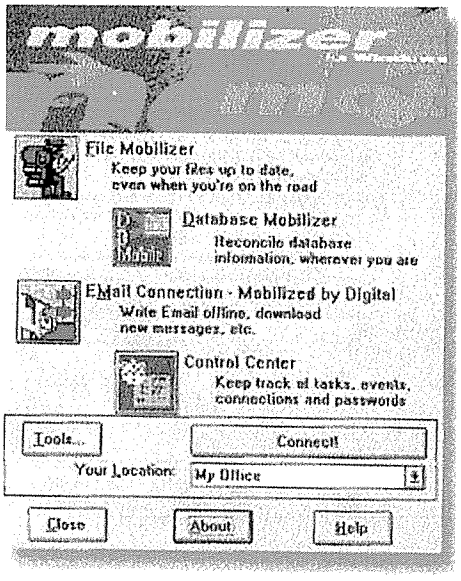
- ANSI, VT52, VT100/102에뮬레이션 지원
- 전송프로토콜 : Xmodem, Ymodem, Zmodem 지원
- 사용환경 : 386PC (메모리4MB 이상)
- 가격 : 49.95달러

■ 윈도용 모빌라이저

디지털 일렉트로닉에서 제공하는 윈도용 모빌라이저(Mobilizer)는 기업내 LAN 접속을 하지 않고서도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및 파일응용프로그램을 통합, 활용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동중에 전용서버에 접속하지 않고서도 기업내 정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모빌라이저는 윈도 3.1을 사용하면서도 마치 윈도 95를 사용하는 착각을 일으키게 한다.

본 제품을 구성하고 있는 4개의 모듈을 보면 다음과 같다.



△ Database Mobilizer

사용자가 ODBC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저장된 기업의 데이터베이스를 자신의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하고 검색하는 기능으로서 원격 리모트 엑세스할 필요없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기업내 데이터베이스는 자신의 PC에 로드될 수 있다. 지원되는 데이터베이스는 'MS Access' 'Oracle' 'Sybase' 'Paradox' 'dBase IV' 'FoxPro' 등이 있다.

△ File Mobilizer

파일 갱신 및 네트워크 드라이브에의 접속을 용이하게 하며 거대한 양의 메모리를 저장하여 전체 데이터베이스를 로드하는 수고로움을 덜어준다. FM은 워드프로세싱, 스프레드시트, 그래픽 응용프로그램 등 PC 소프트웨어와 함께 운영된다.

△E-Mail Connection

커넥트소프트사(ConnectSoft's)의 'E-mail 커넥션(connection)'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cc:Mail, MCI Mail America Online Compuserve를 포함하여 E-mail을 통합,정리한다. 하나로 통합된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E-mail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복수개의 E-mail 계정을 소유하고 있는 사용자에게 유용하다. 본 제품의 설치환경은 인텔 기반의 486PC로서 램8MB 이상이며 가격은 2백99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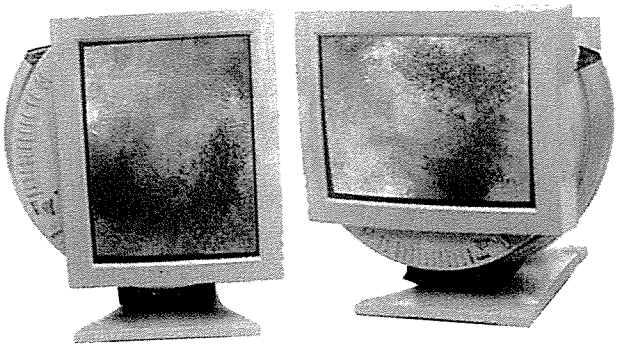
△Communication Manager

사무실내 네트워크 파일서버와 노트북 PC간의 원거리 통신을 제어하며, 이더넷, 유선전화, 셀룰러폰 CDPD, LAN과의 통신프로토콜을 조절해 준다. 이동중에 있을 경우 사무실내 LAN과의 접속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며 일련의 업무를 단번에 자동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포트레이트 디스플레이연구소 '피보트1700'

커다란 스프레드시트를 보기 위해 혹은 그래픽 작업을 하기 위해 다시 랜드스케이프 모드로 바꿀 필요가 없어졌다. 단축기 하나만 이용하면 1초도 걸리지 않아 화면 모드를 바로 바꿀 수가 있다는 것이다.

모니터 브라운관을 90도로 회전시켜 사용할 수 있는 17인치 모니터 '피보트1700'은 일반 모니터처럼 랜드스케이프 모드로 보거나 아래 위로 길게 세워놓은 포트레이트 모드로 돌려볼 수도 있다.



래디우스사가 이미 개발한 바 있는 이 모니터는 포트레이트 디스플레이연구소(PDL)가 매킨토시용으로 개발했던 이 기술을 응용하여 윈도 플랫폼에 적용시킨 것이다. 피보트 1700은 17인치 화상 튜브를 기반으로 하고 대각선은 12.9인치~16인치까지 볼 수 있다.

일반 모드의 모니터는 한페이지의 2/3만을 볼 수 있고 나머니 페이지를 보기 위해 스크롤을 계속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피보트 1700은 포트레이트 모드로 세워놓았을 때 문서를 동시에 풀 스크린으로 한 페이지에 볼 수 있다. 아래위로 길게 세워진 포트레이트 모드에서는 A4와 같은 용지에 맞춰 작성한 문서 한 페이지를 한번에 볼 수 있으며 월드와이드웹 홈페이지를 만들때 매우 편리할 것이다.

단 그래픽 카드가 이러한 모드와 해상도를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제품 가격은 9백99달러이다.

■ 멀티스핀 4Xc와 DRM - 624X

NEC사는 여러 장의 CD를 하나의 CD롬 드라이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쥬크박스(Jukebox)식 CD롬 드라이브, 멀티스핀(Multispin) 4Xc를 발표했다.

이 제품은 경쟁업체인 파이오니어 뉴미디어사의 DRM-624X를 겨냥한 것으로서 그동안 쥬크박스식 CD롬 드라이브분야에서 NEC가 파이오니어 뉴미디어사에 열세를 면치 못했다. 이번에 발표된 NEC의 신제품을 이용하면 7장의 CD가 각각 별도의 CD롬 드라이브에서 실행되는 것처럼 사용할 수 있다. CD 홀더가 하나뿐인 경쟁 제품에 비해 NEC의 멀티스핀 4Xc는 다중 홀더를 갖고 있으며, 가격면에서도 파이오니어 뉴미디어사를 겨냥하고 있다.

제조회사	파이오니어 뉴미디어	NEC
모델명	DRM - 624X	Multispin 4Xc
전송속도	4배속	2배속
시스템 요구사항	SCSI-2(어댑터 별도구입)	SCSI-2(어댑터카드 포함)
최대저장 CD	6장	7장
홀더방식	싱글트레이	멀티트레이
가격	5백80달러	3백49달러

■ 低價 인터넷 전용 PC

특정한 용도에 맞게 기능과 가격을 대폭 줄인 저가(低價) PC가 여러 업체들에 의해 개발되고 있다. 터미널에 비유할 수 있는 이 제품들은 주로 인터넷 접속과 같은 제한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설계된 것으로서 다른 일반 PC기능은 수행할 수 없다.

아직 설계 초기 단계에 있는 썬은 월드와이드웹 페이지와 같은 네트워크기반 데이터에 쉽게 액세스할 수 있는 휴대용과 데스크톱 솔루션 모두에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아래 상용화를 서두르고 있다.

썬의 관계자는 최근 나오고 있는 휴대용 컴퓨터는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빠르게 얻어내는 데 불필요한 요소들을 너무 많이 지니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자바(Java) 애플릿이 하드웨어와 상관없이 데이터와 애플리케이션을 분배하는 기능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한다. 일반적으로 이 제품들은 저가의 디스플레이 기술과 마이크로프로세서, 통신 포트로 구성

되며 CD롬 드라이브나 하드디스크 등은 장착하지 않는다. 초기 가격은 5백달러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컴팩 역시 8MB의 RAM과 인터넷을 접속할 수 있는 윈도 95가 들어 있는 기본적인 하드웨어를 5백달러 이하의 가격대로 홈PC시장에 붐을 일으키려 하고 있다. 컴팩은 2천년에는 가정용 PC시장 규모가 6백50억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쉘 컴퓨터로 동유럽과 아프리카, 아시아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 차세대 프로세서 '사이릭스 6x86'

인텔 펜티엄 프로가 상위 워크스테이션과 차세대 데스크톱 시장을 노리고 있는 틈을 타 사이릭스의 6x86프로세서(M1)가 PC 주류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인텔의 120MHz, 133MHz 펜티엄 프로세서와의 경쟁 가능성을 밝힌 바 있는 사이릭스 6x86은 기존의 소프트웨어 응용프로그램에 있어서 가장 성능이 우수한 차세대 프로세서이다.

사이릭스의 새로운 인텔 호환 프로세서인 6x86의 성능 및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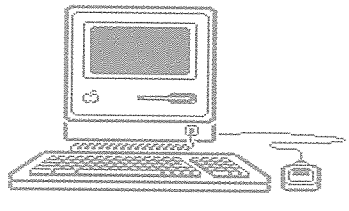
첫째, 6x86은 16비트 뿐만아니라 32비트 운영체계에서 호환이 가능하다. 펜티엄 프로는 32비트 코드에 최적화돼 있는 반면 사이릭스 6x86은 32비트 뿐만 아니라 16비트 애플리케이션에도 적합하게 설계되어 있어서 16비트와 32비트 소프트웨어가 공존하는 현 PC소프트웨어산업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둘째, 6x86의 우수한 성능과 저렴한 가격은 PC제조업체들의 본격적인 지지를 얻기에 충분하다.

6x86이 처음 발표되었을 당시 단지 100MHz의 클럭속도에도 불구하고 사이릭스 자체 시험결과, 성능면에서는 펜티엄 133과 펜티엄 프로 150을 훨씬 앞섰다. 펜티엄 프로가 6x86에 비해 최대 20% 정도 속도가 뒤떨어진다는 자체 평가에도 불구하고 사이릭스사에서는 100MHz 모델에 비해 크기가 반이 줄어든 120MHz 6x86을 발표하였으며 올해 중반쯤에는 다이의 크기를 33% 줄이고 클럭속도는 133MHz까지 증가시킬 것이라고 한다.

현재 제품군들은 펜티엄 66과 비슷한 다이 크기에 펜티엄 133MHz수준의 성을 제공하며 다이 크기를 줄여가면서 클럭속도는 물론 수율 또한 증가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수율의 증가는 가격 인하와 생산량의 증가를 의미하며, 이는 주요 PC제조업체들로부터 대단한 지지를 이끌어 낼 것이다. 작년 10월에 첫번째 6x86프로세서가 처음으로 시스템 공급업체들에게 납품된 이후 1천개 주문 기준으로 칩 1개당 가격은 4백50달러. 이는 펜티엄 120에 비해 30% 싼 가격이다.

CPU의 기능면에서 5개의 주요 기능 즉, 정수연산기능(integer unit), 캐쉬기능(cache unit), 메모리관리기능(memory management unit), 소숫점연산기능(floating point unit), 버스접속기능(bus interface unit)으로 구성되어 있는 6x86은 펜티엄 프로와 같이 수퍼스칼라와 레지스터 재지정, 비순차적 실행을 지원하는 수퍼 파이프라인, 다중 분기 예측을 제공한다.

물론 펜티엄 프로가 최적의 환경에서 사이클당 3개의 x86 명령어를 처리한다면 6x86은 사이클당 2개를 처리함에도 불구하고 사이릭스는 이 차이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로 사이릭스는 인텔이 실행되기 전에 x86 명령어를 마이크로 연산으로 변환시키는 RISC와 비슷한 아키텍처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 6x86은 이러한 변환과정이 필요없다는 점을 든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사이릭스 6x86에 대한 인기는 인텔 CPU시장독점에 대해 위협을 느껴온 PC업계의 입장과 호환성 및 가격, 성능면에서 이들의 욕구를 채워준 사이릭스 6x86의 성능이 결합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가장 먼저 6x86 지지계획을 발표한 미국의 AST리서치, 엡슨, 독일의 피코크사를 비롯하여 PC업계의 지원선언은 계속될 전망이며 이로 인해 인텔 펜티엄과 펜티엄 프로에 대한 사이릭스의 시장 공략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ST